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정글에도 유채꽃은 핀다

‘정글(jungle)’은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깊은 숲의 명사다. 비유적으로는 ‘경쟁이 심하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찾기 힘든 곳’을 가리킨다.

인제부러인가 현대인은 ‘정글’의 삶을 달갑히고 있다. 표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의 차이를 보일 뿐, 원시림의 그것과 효용은 비슷하다. 마치, 역사는 흐르고 흘러 다시 제 자리라는 경법한 진리를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반복되는 습성이 있다. 참으로 신기하고 신기한 흐름이다.

그 흐름의 정황에서 누구나 ‘내장성’을 인정하며 살지 않으면 활기찬 하루하루가 주어진다. 이러한 생활한 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북북전 다수에 게 주어지는 소중한 삶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이상성이다.

대표적인 예를 찾는 것은 한 마리로 ‘결’이다. 부서별로 분류된 공문의 ‘결’은 게임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은 누군가 공문을 접수하고 해결해야 마무리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분류된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각종 게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각종 게임이 전방이 되는 것은 짧은 시간이다. 담당자의 판단이 어려운 시간이다. “그냥 내가 접수하고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지 뭐.” 그 선택이 얼마나 바쁘면 내게 제지성 있었어”, “그래, 윽하게 내가 해 준다”, “또 나야! 더러워도 능력 있는 내가 한다”, “다 뭐 다 내게 뭐, 뭐 까졌것 처리하면 될 것들...”, ‘달랑한 사람’ 등 복잡한 상황이 생리되면 마음이 편하다.

이처럼 그 각종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선수 중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이었다. 너무나 너무나 쉽게 분류되어 온 공문 제목을 살펴 대다 환승도 쉬기 어렵다. 특히 신일 시절 무조건 상부 하달에 따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도 한 말은 해야 한다”며, 난 야 무지게 떠났고 제자리에 둘러놓은 공문이 열에 여섯 일곱은 되었다.



박여범

운북중학교 교사
문학박사·문학평론가

한 마리로 난 ‘정글의 캄캄’이었다. 막내라는 이유로, 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을 맡아들이기에는 돌음표가 전라에 꼬리를 두고 있었다. 이 쿠러진 질서는 수십 년간 지속해온 결과였다. ‘관계’라는 비장식적인 분류가 이 자리를 거쳐 간 많은 선배의 고봉이 쌓인 지리라는 것을 알아채기엔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제는 세월의 무게감 앞에 내가 그 공문 분류의 관리자가 되었다. 관리자가 되면서 가장 먼저 ‘질서’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얼마의 시간은 낙어지고 저항이 있어도, 정도에 시뮬러고 ‘질서’를 올바른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보호한 공문 분류도 동성화 판단으로 새로운 결서를 만들고, 구성원들이 이해시키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목표가 정해지면 4천이다. ‘시작은 막막하나 짧은 참대하리다’라는 성정 말씀처럼 구구한 도전이 되지 않기 위해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해왔다. 관계에 익숙한 분위기는 시간을 두고 작은 것에서부터, 의견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단 들어야 해답이 나온다는 기본 원리가 출발점이다.

이처럼 ‘변형과 변화’를 시작하는 피드백이 가져다주는 정글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의견과 마음이 어느 정도 접근하는 동료에게 협조를 구했다. 일을 아무 기우는 동료의 공문 처리를 우리가 접수하고 무난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오늘도 난, 정글을 돌린다. / 이글거 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어느 날 / 휴

남새가 미치게 그리워 / 토할 것 같은 정글, 그 정글에 정글에 유채꽃이 피었다

박여범-정글에도 유채꽃은 핀다 전문

위의 시처럼, /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어느 날, 휴먼새가 미치게 그리워, 토할 것 같은 정글, 그 정글에 정글에 유채꽃이 피었다. 누군가 해야 할 업무라면, 갈등보다는 기다림과 여유를 찾아보자는 시인의 깊은 교민을 만날 수 있는 문장이다. 그래야 이리 정글은 /정글을 돌리고 내일을 준비해야 정글이다.이글거리는 맹수의 이빨도 / 떠오르는 태양에 밝은 기소가 되는/정글, 그 정글에 /경쟁적 마인드류 소유한 구성원이 많다. 것이다. “능력 있는 우리가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까짓, 낫할 일이 어니 있겠어요?”처럼, 신랄하고 차가운 현대인의 정글에도 노란 유채꽃이 향한다.

그런데도, 만발한 유채꽃을 각종 케임으로 넘겨버리는 여러석은 일부 사립이 문제다. “이거 잘못 분류된 것 같습니다.”, “이, 이거 제 업무 아닌데...”, “공문 분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제시정 요청했습니다”처럼, 참 어려워 것이 사립이다. 야, 가장 어렵고 부러운 것이 사립이다. 언제나 이룬도 직군도 될 수 있는 2천의 끝 날이다.

이처럼 유채꽃 만발한 정글에서는 즐거운 시간과도 고통하고 병행하는 시간으로 넘어지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아예 보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에 넘어야 당겨야 한다.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날, 가깝게 우산 하나 없어지고, 잔잔 휴먼새 온 몸으로 막아내며, 기지가 그림고 토할 것 같은, 지긋지긋한 정글, 그 정글 마당에 가득가득 유채꽃 피면, 짝지와 함께 차 한 잔 나누며 못다 한담으로 찻산을 채워보지

정글에도 유채꽃은 핀다.

독자재언

신종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와 2단계로 지속하는 등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고자 안전권을 쓰고 있는 중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사이 음식점에서는 음식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른

도로 위 시한폭탄, 라이더가 위험하다

이런차 위반과 사고 또한 급증하였다.

우리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문을 하는 고객이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여부와 맛있는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업체와 배달기사의 올바른 안전의식이 합쳐져야

야 하며, 신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주행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휴대폰 및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비가 내리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러우므로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등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심주환 부안경찰서 서무지구대장장

사설

국회의원 논문 표절 문제

지도층의 논문 검정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학위 논문 검증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대학은 표절의 심 제보를 받거나, 인지했을 때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침은 있으나 마나다. 연구 윤리 위반 조사와 사후 조치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도 없어 봐주기 조사를 해도 알 수 없는 구조다.

논문 표절 여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요 검증 기준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행정 각부의 수장에 오른 국무위원들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 출신이 많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홍보하기 위해 학위를 내세운다.

그러나 학위 문제에 대한 진실성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21대 의원 300명 가운데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18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내 대학에서 논문을 쓰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150명이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논문을 검사해보니 34건의 논문에서 20% 이상 표절 의심 현상이 나타났다. 표절을 20%는 논문 취소, 학위 철회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수준이다.

학술지 게재 논문과 문장이나 단락 구분이 똑같은 논문도 많다. ‘규정하였다’를 ‘정하였다’로, ‘실시하였다’를 ‘시켰다’로 ‘공포’를 ‘발포’로 수정하는 식이다.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지도 과정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짜깁기 흔적이 발견된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 연구 윤리 지침을 제정해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정치인 등의 학위 논문 논란이 왜 반복되는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따져보아야 한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 문제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지금 전 세계의 관심사이다. 최근 영양실조와 수해 등으로 고통 받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는 대북 제재 때문이 아니라 점이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의 약탈 정권에 상당한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그 돈은 핵무기 개발이나 지도자의 호화 요트 혹은 정치범 수용소 주변 가시철조망 구입에 사용되었다. 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고 장마당에서 거래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수치제 거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코로나19에 대한 지난한 통제 조치로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 유입을 막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등에 따르면

약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 가량이던 국제시장에서 옥수수나 쌀을 구매해 주민들의 굶주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이 사치품에 쓰는 비용은 매년 6억 5천에서 7억 달러이다. 미사일 예산도 매년 13억 달러 정도다. 돈이 없어 인민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양부족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0퍼센트, 짐바브웨와 아이티는 약 50퍼센트이다. 북한과 함께 세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과 같이 어느 정도의 산업화/공업화/문명을 퇴치를 이룬 나라가 이처럼 만성적이고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혹은 한미가 제재를 상당 부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인도적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